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모교 ENACTUS 팀 '2012 ENACTUS World Cup' 출전

Semi-Finalist로 역대 최고 성적 올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초청의 역대 최대 대회
전 세계 39개국 1천600개 대학의 대표팀 참가

모교 ENACTUS 팀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Washington D.C.의 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2012 ENACTUS World Cup'에서 Semi-Finalist에 오르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초청함으로써 세계 39

개국 1천 600개 대학의 대표팀들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모교 팀은 Sem-final까지 진출했으나 아쉽게도 이탈리아에 위치한 경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이 대회 최종 우승은 미국 Belmont 대학이 차지했다.

ENACTUS'의 'Entrepreneurial Action'은 창업으로 사회적 문

제에 관심을 가진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가 정신, 시장 경제 원리 등을 교육해 다양한 사회 구성을 원하는 경제적 기회와 지역 가능한 소득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다.

이 단체에는 세계 39개국, 1천 600개 대학, 5만 7千명의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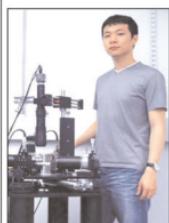
들이 속해 있다. 매년 각국에서 ENACTUS worldwide 대회를 열어 그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ENACTUS World Cup(이하 'WC')에서 다른 그들의 성과를 가지고 겨룬다.

한국에는 모교를 비롯해 30여개 대학의 팀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한 차례 'National Competition'을 열어 자신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가 가진다. 이 대회 후 원인기금 임원진들로 구성된 'Enactus Korea' 실무위원회는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에 따라 팀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한다. 가장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2010년 모교 수석 졸업생 윤호상 등

하버드에서도 1%의 인재로 꽂기



2010년 모교 수석 졸업생 윤호상(기械공학부 05) 등이 IEEE, LaserFocusWorld 등은 '유니콘' 칭호를 마이너스 700까지 끌고 날아온 아이디어가 최적이며 이 연구로 상상 속의 푸른 꿈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호상 교수는 "하버드에서 1%인 에 드는 인재로 뽑기" 하버드 대 공대에 세학중인 윤호상(25·사진) 등이 지난 8월 2일 'Nature'에 제1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3개월간 전행했던 저자와 풀리즈은 실험을 논문화한 것인데, 처음으로 주저자로 쓴 논문이 세계 최고 과학 저널에 게재된 것이다.

모교 졸업 후 석사 과정에 진학한 2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사

신분으로 쓴 논문이라 해의 언론에서 뉴스로 끝나 앉았다. Fox News, IEEE, LaserFocusWorld 등은 '유니콘' 칭호를 마이너스 700까지 끌고 날아온 아이디어가 최적이며 이 연구로 상상 속의 푸른 꿈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호상 교수는 "유니콘" 교수로 하버드에서 최고의 역할을 맡았고 그에게 속한다"고 말했다. 향후 윤호상 교수는 1996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칼텍 진저버에서 월츠 최우수 박사 논문상을 수상했다. 흥미롭고 동시에 28세에 하버드 교수로 임용되었고, 2009년에 한국인 최연소로 하버드 종신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현재는 석좌 교수이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젊은

혁신가 35인(35IS)에 한국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Harvard All-Star 교수로 선정되었다.

한 교수는 1996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했고(4.2), 윤호상 등은 2010년 천재 수석으로 졸업해(4.28) '수학대 수석 졸업 사례'의 인연을 엮였다. 물리학, 진공기술, 생물학을 넘나드는 광활한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회 교수 연구실에 유달리 '천재급' 대학원생들이 많다. 고교 때 '국제 물리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따고 캘리포니아 공대(Caltech) 계학사 철전미 대학생 물리 경시대회에서 2연패했던 중국인 저우쭝웨이 (Xiaofeng Li)가 한 교수 연구실을 선택한 것은 그 자체가 뉴스거리다. <연예계>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90248

222호 2012년 10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90248 USA
Tel 310-515-7889 Fax 310-515-7883
e-Mail: snuauaa@yahoo.com

*리그 3 (카르기조스탄 싱가폴·브라질·영국·한국)에 출전했던 한국 대표 서울대 팀이 미지막 밀辱 팀으로 나와 1등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리그 3 대표로 Semi-final에 올라갔을 때 팀원들이 한 환호는 모습이다.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팀은 그 해 기관을 열리는 'ENACTUS World Cup'에 국가 대표로 출전해 세계 무대에서 자선활동의 활동을 소개하고 세계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모교 ENACTUS 팀은 올해도 국내 대회에서 우승해 4년 연속 WC에 참가하는 기회를 세웠다. 귀중한 기회인 만큼 팀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결과 마침내 최초로 Semi-final에 진출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이전 대회에는 오인한 미국 동창회 차기 회장을 비롯한 많은 선 우상호 동창회장 등 동문들의 적극적 도움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회는 지난 7월 25일까지는 'SIFE Students In Free Enterprise'로 불렸으나 올해부터 ENACTUS로 바뀌었다. 2박 3일 동안 Culture Fair, Job Fair, Top-to-Top Forum, Faculty Advisor Meeting 등 통해 전 세계 ENACTUS 팀과의 네트워크로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 <연예계>

<이달의 초대석>HLMI Inc. 이홍표 풍문 16~17면

<My journey to America> 권진희 교수...19면



모교 ENACTUS팀의 올해 프로젝트는 'Revitalize The Salt'.

'Route for Farmers', 'Wings For the Disabled'라는 연결된 세 개의 프로젝트였다.

<경기도 지역 천일 염산업 재활 성화 프로젝트>

1. 문제인식= 2008년 염관리법 개정과 함께 천일염광장에서 식 품으로 자리잡았고 천일염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천남의 염진들은 지역부문 정체 지원으로 일정난 성장으로 국내 천일염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 기도 염진들은 경제적 소외 및 유통구조, 경영진의 역량부족과 일부의 불안정성 소득계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염전화가 전하고 있다. 동시에 간식 지들이 골프장 같은 유통비용을 겪으면서 환경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SNU ENACTUS는 비즈니 스적 접근으로 경기지역 염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관련자를 을 효과적으로 통기부에 염진을 제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2. 현황= PAC관판위와 달리 환경 친화적 융기판영을 사용하는 대체염 관광'으로 발전, 대부도의 동주염장을 대상으로 선 천일염 인지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또 동주염장을 파도나장을 바탕으로 대부도 천일염 특화 사업 전 체험학습을 기획,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업무 지원원을 받으며 운영 중이다. 또 안산시청 및 교육청과 협업, 경기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영밀장을 중이다. 체험 학습은 단순히 인도·제고·측면 뿐 아니라 염부들을 진단자로 고용해 사회적 효과를 확보시켰다.

모교 ENACTUS는 지역축제인 동주염축제와 행정부처와의 교류로 안산시청과 관찰과 함께 내는데 성 공했으므로 안산시청은 지역경쟁체 소금가게업체인 '우이당', 충주로 이동하여 천일염 특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충주에 간식 지들이 골프장 같은 유통비용을 겪으면서 환경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SNU ENACTUS는 비즈니 스적 접근으로 경기지역 염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관련자를 을 효과적으로 통기부에 염진을 제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체험 관광'으로 발전, 대부도의 동주염장을 대상으로 선 천일염 인지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또 동주염장을 파도나장을 바탕으로 대부도 천일염 특화 사업 전 체험학습을 기획,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업무 지원원을 받으며 운영 중이다. 또 안산시청 및 교육청과 협업, 경기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영밀장을 중이다. 체험 학습은 단순히 인도·제고·측면 뿐 아니라 염부들을 진단자로 고용해 사회적 효과를 확보시켰다.

모교 ENACTUS는 지역축제인 동주염축제와 행정부처와의 교류로

안산시청과 관찰과 함께 내는데 성공했으므로 안산시청은 지역경쟁체

소금가게업체인 '우이당', 충주로 이동하여 천일염 특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충주에 간식

지들이 골프장 같은 유통비용을 겪으면서 환경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SNU ENACTUS는 비즈니 스적 접근으로 경기지역 염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관련자를 을 효과적으로 통기부에 염진을 제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3. 앞으로 계획= 천일염'으로 대부도 꽃곳에 친구스의 브로젝트 철 힘의 전장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염전체험학습을 대부도 관광지와 연계해 '대부도 생태 천일염 관광'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SNU ENACTUS는 천일염 특화사업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체적 수익사업을 통해 문제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SNU ENACTUS는 천일염 특화사업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체적 수익사업을 통해 문제상황을



←미주 동창회 모교화 시기 회장(맞은편 줄임)과 위원장 등창회 학문선 회장(오른쪽 회장 염족)과 함께 청원집 등록이 모교 ENACTUS팀 간부진과 함께 방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몇 사전은 물론 ENACTUS팀의 김민수(왼쪽) 회장과 신율진 PR팀장.



위생, 수수 디자인, 험박적 설비 등의 강점을 내세워 사업의 빠른 안착화를 꾀할 것이다.

유튜브를 활용해 및 대부도 내 포토카드와 연계로 지역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한다면, 지속 확장했으며,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해 SNU ENACTUS와 접근세상은 경제직무 교육을 준비해 장애인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3. 앞으로 계획= 향후 포도원 판매를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근세상이 가진 깨끗한 물. ↑ 2012 ENACTUS World Cup'에 참가한 동문들이 대회가 끝난 뒤 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과는 끌라 갈 수 있는 수능 성적 예상과는 달리 낮은 점수를 기대해 전략을 세운 학생은 고민한다. 이처럼 편의 논문은 학생들도 스스로 푸는 경우는 많았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에게는 '논문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되어야'고 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말았다는 평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 첫 학기 학자금 학습 수업 때마다 그녀는 과제와 함께 20시간에 걸쳐 풀어 놓을 때 다른 하버디언들을 그렇게 놀라게 할 줄은 몰랐다. 카페를 혼자 풀어온 사람은 본인 뿐이었다고 때문이다.

교고에서 이병호 교수의 '영재 역학 기초', 폴목 수강시 교수가 성적 비교판에 'A+에 해당하나 A+가 일정으로 A+를 줌'이라는 예모를 남겼다.

'교고' 곧 학부 커리큘럼이 바뀌드 학부도 더 바빠져요. 미국에서 일정이었어요. 내가 빠져나온 점에 서면 먹는 정도의 넓은 생활을 유지했지만 그의 학제적에는 10 두개를 제외하고 모두 A+가 석차다.

'교고' 곧 학부 커리큘럼이 되었다. 윤군의 강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았다.

"교대부터 다녀오구요." 모교 청년의 하버드 경복기는 뛰어난 문교수는 박사 학위를 받던 26세에 네시스 오스틴 대학 교수로 임용

에야 계속될 것 같다.***

시사만평

박준창(인문대 79·변호사)

"서울대 운동부도 우승한 적 있다구요"



2011년 창단 여자축구부 1년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관 우승

차례

- 3. 복한은 개방을 하고 있는가/ 등문 시 감상(예모)/ 일련
- 4. 6기 특집집도록,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 대화=비례적 제작 아니니까 일 것 같다 는 속설이 뿐
- 7. 동양인은 수학의 천재/ 증명과 해석학
- 8.<관악세대>[기] 불황의 티uel 이재 광이 보이니/[여] 반전영화 Battle LA
- 9.<관악세대>하이트Minnesota 비른다고 해야지침/ 슬 미시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 10.<관악세대>[여] 부자나 되지 못하는 이유/ 유럽 한국학의 대부 이옥 교수
- 11-14. 미주 등문동정
- 15. 미주 지역 동창회 소식
- 16-17. 이달의 초대석이 출표(의회 58동)
- 18. 미주 지역 동창회 소식
- 19. My Journey to America(재) 캔자스 주립 대 권총회 교수◆
- 20. 돌아온 장고 강남 스타일/ 싸이는 후루 푸기 아닌 등문 시 김강(그대와 함께 달리던 이길)
- 21. 특별 인터뷰<온숙일 전 고의기자 장관>
- 22. 목록>
- 23. 세기적 인물 한수립 여사<▶▶▶/ 등문 시 강상기기▶
- 24. 점점 ②주년 Eisehower▶
- 25. 고국 등문 동정
- 26. 26. 등문 일소록▶
- 30. 동창회 지부 회장단/ 편집후기
- 31-32. 광고

222호 2012년 10월

시사 칼럼

“북한은 개방을 하고 있는가?”



백순(법대 58)
미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지난 해 12월 북한의 3세대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이 각종 서구적인 문화를 선호하는 행사와 행위(김정은의 미끼 마시기, 텐트, 현대 음악회 관람과 라이딩, 이설주의 명품광장과 동반동장 등)를 보이며 특히 외연과 개방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국방 충 채워자였던 이영호를 실각시키고 군부의 경제력을 노동당이 강약하니 실력자인 장성택의 중국 경제 시장 방방 등을 북한이 개방방언에 개혁까지 거리고 하는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세계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대해 어떤 나아가고 비판과 의견을 균형에 맞춰 개혁하고 있다.

첫째, 나란한은 4기자로는 눈거리를 세우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문화생활은 현대화와 사회 시장의 확장과 동장

의 개혁, 해외기업의 북한유입 등이 그것이다.

근래 비공식적인 통계는 북한의 생활인구가 100만을 훨씬 넘었고, 웹사이트 관람자가 수천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 상인들을 통한 CD도 많이 통틀어서 북한의 기능성을 예견하는 낙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예상과 반대하는 북한개방 비관론도 만만치 않은 의외되고 있다.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지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한다.

위 실현 DC에 있는 퍼티슨 연구소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Marcus Noland은 “김정일도 경제 개방을 위하여 몇몇 인정, 물가 거래, 화폐개혁 등을 단행하였지만 모두 실패한 바와 같이 북한이 공산주체로 재편(주체사상)을 고수하면서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방은 분명하게 ‘실패(Unsuccessful)’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반 북한은 대기기로 수백만 명 이상의 아서사를

나를 제거하고는 다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계급도는 점

대로 낭비로 늘어난 경지이다.

이 농장에서 자 조각 생

산한 모든 생산들은 침단증

으로 베치는 생산구조로

북한은 글년 9월 28일 농장 1

개조의 생산단위를 4개으로

줄이고 한 조에서 생산한 생

산 사람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까지 그 조의 소유로 인정받는

농장생산 재도전의 계획을 단

행했다.

얼마 전 미국 국무성 전 관리

한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은

개방과 개혁을 외부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최근에는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가 미국의 코카콜

시울대 미주 동창회보

동문 시 감상

애모(哀慕)



임용오(의대 57)

여보쇼 벗님네야.
한 마디 말도 없이
어찌 그리 급히
홀로 가버렸소.
내 이젠 누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만사 담수(談笑)에
붙이겠소.

회자정리(宿定離)라지만
언신 모습
오늘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다운 당신 목소리

그리움이 파도로
밀려온 때면
이렇게도 힘들 줄
몰랐었구요.

보고 싶소, 보고 싶구요.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나자고.

<앞서 간 이진용(李珍龍)
『인을』
Highland Ca에서>

(Change)의 의미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제도는 그대로 고수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는 ‘방법개조(Redo)’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리시아의 세계 경제와 국제관계 연구는 작년 9월에 출간한

‘세계 전망 2030 (Global Outlook 2030)’에서 “김정은은 34 세 이후 ‘불안정’과

‘국제사회에 의한 임시체계 수립’을 거쳐 2020-2030년대 경

‘남북통일’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개방, 비관론과 관련해서 3기자의 북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김정은이 외부에 나타날 때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모습을 맑아 가려고 하는 경향은 김정일의 ‘선군 정체’ 보다도 ‘주체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선경정체’를 추구하는 모습 드러내고 있다.

국부 죽고 세력이었던 이영호의 실각과 군부 경제력을 노동당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미국 워싱턴 DC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상을 깔두고 북한의 본명이 렉싱턴이나 미사일 발사, 또는 서해 및 서울에 대한 보조 등을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농담할 수밖에 주목하고 있

는 실정이다.***

알림

“미주 동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21주년 평의회
2012년 7월 8일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추천위원회 위원장 송순영 회장 김은종

벌써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제22차 평의회 회의를 열어 Los Angeles의 제11대 미주 동창회가 Washington D.C.의 제12대 미주 동창회로 인수·인계되는 시기입니다.

더우기 이번 제22차 평의원 회의에서 Washington D.C.의 제12대 미주 동창회를 이어받을 차차기 총 회장(제13대 미주 동창회장)의 선출이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미주 동창회에서는 추천위원회 세제 제4조에 의해 차차기 미주 동창회장의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후보 대상= 차차기 총회장(제13대 미주 동창회장)

▶ 심사 기준= 차차기 회장 후보는 재미 서율대 지역 동창회 회장을 역임하거나, 혹은 총 동창회장단에서 타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혹은 일반 회원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

▶ 추천서 제출처= 미주 동창회 사무실(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로 e-Mail(smuausa@yahoo.com), 또는 Fax(310-515-7883), 또는 일반 Mail로 제출 바람.

▶ 후보 추천 마감일= 2012년 11월 30일

기획특집<독도,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 대화>

“원래 제 땅 아니니까 일을 것은 없다는 속셈일 뿐...”



홍승목(법대 76번)

동문 출신으로 전 네필 대사는 독도 문제 전문가로 외교통사부에서 10년간 재직하면서 독도를 담당했다. 출신은 전 대사가 국제법 교과서에 근거한 1990년도 독도 관련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국제법 학자들에게 위로를 아끼며 저작한 2005년 ‘대한민국법학회 학술총회’에도 참석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일본으로 터지는 독도 영유권은 ‘일본의 땅’이다는 논지의 논문을 쓴데 중 대사와 대화를 나눈 주제는 ‘북한 영토’로 비춰졌다. 이 글은 국제법 학자들에게 위로를 아끼며 저작한 2005년 ‘대한민국법학회 학술총회’에도 참석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일본으로 터지는 독도 영유권은 ‘일본의 땅’이다는 논지의 논문을 쓴데 중 대사와 대화를 나눈 주제는 ‘북한 영토’로 비춰졌다.

▶Monnereau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연구 중이다. 일본 자료로는 충분히 해양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측 시각은 일본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어 이를 살피고 싶어 한다.

▶홍승목 일본에서 독도 주제에 대꾸할 필요 없으나, 일본 우리 경부 입장이다. 1955년 한일 기본협정에 의해 지난 30년간은 한국 입장은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한국으로 이르렀던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onnereau 일본은 국제판례에 의해 확실히 해결되는 바 거부하지 않고, 일본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홍승목 일본은 국제판례에 의해 해결되는 바 거부하지 않고, 일본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나마 일본은 이를 거부하면서 끝난다. 즉, ICJ는 국정의 법원이기 때문에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Monnereau 일부는 이를 찾을 거부한 이유가 있다. 찾았지만,

▶홍승목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이유로 IC에 가야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Monnereau 국제재판에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홍승목 ‘한국의 영토’라는 논문에서 “독도를 국제재판에 회부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으나 일본의 정부는 학자들 사이에 일체 반응이 없

있으니 제판을 갈 수 있고, 상대방이 실효침유하는 경우만 제판에 가자는 것은 논의인가. 비슷한 문제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 수상하지 않은가.

▶Monnereau 일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입장에서는 일본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상대가 첨예증진 독도에 IC에 가져가지 못하면 점유증진Senkaku Islands 문제에 IC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홍승목 일본은 물론이고 일본을 향한 대우를 달라고 본다.

▶홍승목 결론 말만 하나 다만 ‘식민주주의’에 입각한 영토임이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대로 먼저 할인이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한국으로 넘기고자 하는 것은 이상하다. 조약의 해석문제라면, 한국영토의 외곽에 있는 주요 섬이기 때문이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독도가 일본영토라 주장하는 주장을 부리는 것

이거나 정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Monnereau IC에 가기로 했을 때는 일본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었다. 용하지 못하는 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 교수는 독도에 관계문제로 국제법학회장을 겸부에 대한 대표 논문의 하부로 일본이 철저히 검토되었음을 것이다. 일본이 물에 들어지 않은 게 아니다.

▶Monnereau 여기 교수의 논문은 나중에서도 일본정부가 중재재판 하자 제시해온다.

▶홍승목 결론 말만 하나 다른 ‘식민주주의’에 입각한 영토임이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대로 먼저 할인이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이상하다. 조약의 해석문제라면, 한국영토의 외곽에 있는 주요 섬이기 때문이다.

▶홍승목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이상하다. 조약의 해석문제라면, 한국영토의 외곽에 있는 주요 섬이기 때문이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승목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처럼 독도는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는 의문을 확보했을 것으로 양국 중에 어느 나라, 열도였는지 확인해보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서구 민족주의 개념에 따른 것이고 문명은 서민주의의 거부 입장이다.

독도의 거리적 위치와 규모를 감안할 때 이미 관련 기록이 한국이

나 일본에 속하는 다른 유사성에 대한 기록의 수준에 이르면 일단 독도는 무주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양국간 독도문제가 충돌하면서 일본언론은 평화적 대응과 함께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당시국은 아닌 한국 대륙에 설립되었을 때는 군사적 차이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lium)이었으므로 어느 나라도 선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은 1905년 이미 영국인 국민과 일본인 국민과 같은 유사성이 대한 기록의 수준에 이르면 일단 독도는 무주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서구 민족주의 개념에 따른 것이고 문명적 가치는 거의 없는 태도로 영유권을 주장한 역사적 기록은 다른 유사한 섬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다.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Monnereau 페미우트 전쟁 후 1951년 제3차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제주도·가문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온에 nervous 하다”고 물을 것인가.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Monnereau 일본은 2004년 2월 영토분쟁제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하지 못한 일본은 독도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임대 일은 같은 해 한민의 외교관을 탈취한 후 다음 해인 1905년 일본 관리들을 탈취한 후에 그들을 '독도'라 이름으로 일본 정부가 케이지에 둘러보려고 했던 것"고 통보했다. 이에 윤봉구는 깜짝 놀라 정부에 "本 韓國所 属人 獄屬"에 대해 일본인 관리들이 통보해 준 내용을 보여주고자 소토사로 견디고 했다. "이제 계부터는 일본 정부로"라는 일본 관리의 토봉과 "本 韓國所 属人 獄屬"이라는 한국 관리의 보고서 당시 양국의 영유지 이름을 서로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보고서 위분이 있으므로 믿을 수 없다"라며, 웃었다. 윤봉구는 서고하고는 바로 해 시문

자신의 이익에 반대하면 무조건 '옳은' 아니었다"라고 말한 후, 그 전제에 해당하는 다른 별이 있거나 아니면 해워하기 때문이다. 어느 푸이든 나한테는 마찬가지로 나한테 임금제일이 없다'는 것이다.

『Mormann』 100년 이상의 역사 기록으로, 동독과 그의 고유정치를 입을 짚으면 한 번은 어떤 것이 있다니, 밤금『100년 이상의 역사 기록』에 '도둑' 또는 이름은 쓰이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헬레는 '우산도와 삼봉도, 그리고 거제도', 등이 동독과 그로운지처럼 말본 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총·여기사』 1950년도 '나·삼봉도' 등은 유통되는 거리낌 없는 '나'와 '우산주자도·우산·봉지' 등은

는 것은 일상적인 가치 자체로 해석할 것이다. “*孤島*”과 “*孤島民*”은 각각 한 때의 ‘孤’과 ‘島’에 대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孤島民*은 그 자체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닌 하위 그룹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즉,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닌 하위 그룹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즉,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닌 하위 그룹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무드는 고 한 것은 일본 영광을
집권적으로 인정한 것 아닌가.
▲총=『于山島は 일본國のものは
マツシマとソラ島とも 부른다』고 부연
설명한 것은 그동안 주로 주정경
부에서 우선으로 잘못 이해해
온등과 동일한 설 이상이나 별
설이지마우 우상국의 본 설 으로
보는 경향에 있어 이를 복식시
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용은 한국 영광을 분석하
거나 내리거나 그것으로 일본 영광
라는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설정은 살 여지는 없다. 일본인이
독도를 마쓰시마·솔라섬으로 불렀던
다는 사실은 알게 된 것은 무
언을 듣고서 바로 한국과 일본
의 진작본거가 모여 있거나 아니면
기반설정부가 모여 있거나 아니면

즉을 바라보니 푸른 산과(65%)
기억의 풍경이 보인다. 고 했다
(註)『關島鳥事』, 鶴見波(「ホクミハセ」), 「ホクミハセ」, 1919.
미우기 일본인
도 융통에서 드는 속시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 시문이었던
1919년 융통에 일본 일본 하자기
「옹울고 끝았을 때
동쪽 향으로
바다 멀리 신(疎목)이 보인다」
고 기록했다(註)『關島鳥事』, 鶴見波(「ホクミハセ」), 1919.
가와끼마는 「보이지 않는다는」를
중증화하는 것은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는 것인지도.
「뒤로 돌아온
면 안 보인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Mornement*은 고지하고 도무
도 일본인으로 표시한 것이 많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이 1905년 비밀리에 독도를 영토편입한 뒤 1906년 울릉도에 관리들을 파견해 ‘독도는 이제 일본영토가 됐기에 둘러보러 왔다’고 통보했다”

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음울하고 무기력”이 고 단정하기 때문에 문제를 찾았다. 유통도 주제가 아니라 “반드시 음울하고 무기력”으로 묘사되는 유통과 그에 따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황에 기여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유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련은 우편과 신문·방송과 같은 대중 미디어를 거치면서 유통과 별개의 선인 그것이 분명히 되어 유통과 함께 물어나온다. 우신사는 우신국이라는 역사적 나라이름에서 찾을 수 있고, 경상도는 경상우편이라는 가정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경상도는 가지 않거나 풀어가는 사람의 이름에서 레시피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유통도는 둘 다 물가에 산다는 우신사의 19세기 기록에도 있다. 따라서 도록도는 이런 여러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차이점은 찾는 자와 시스템이다.
*Monologue*는やはり 한국인이며 주제를 원하는 세대에게는 우편과 무기력이라는 모두 유통으로 기록된다. 그들이 주제에 일관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거나, 세대에 속해 있다—“왔는데”는 『山島物語』에서 유통과 함께 해나를 살리고자 하는 삶을 그리고 “다”라는 말을 막하고 있소.”

일본인은 유통물을 “데스케이지”¹라고 부른다. 도마를 “마쓰시마”²라 부른다는 사실은 알리గ지 헤기 때문이다.

Manner 당시 “안”(安寧)과 “사진”(平安)을 주제로 고리로 살고 유학에 간 일본인 영유방을 풍물과 증거로 나서는 내용이 타파당하는 보고는 더 이상 안用人은 범법자로 몰려온 바탕으로 전술한 내용이나 신빙도 있는 의문으로 떠나야 한다.

“느느” 이는 일련의 징계가 범법자와 황제를 겸진 깊숙이 국가 공정과 사족(士族)을 담고 있는 고의 진술이라 단정 짓거나 무관한 범법자는 “아니”³라고 통하고는 양국의 “한국은 영기”⁴라는 인식 속에 안用人이란 확신을 끌어내고자 하는 기획이 고지하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用人은 개인을 위로 하면서 하자면 아니라고 단정 짚거나 지도에 뛰어들보다는 그에 맞는 교양으로 고지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가 국가가 폐포로 교양을 삼는 환경 속에 대개하게 취급했을 때 “신신내”⁵라고 부르거나 “기자”⁶ 혹은 “양재봉”⁷라고 부르거나 “영장을 넣어 끌고온”⁸ 와서 품을 차운 자를 “광송”⁹ 등부로 부르거나 “여기 고장은 임금은 없는 나라”¹⁰라고 고언하는 “영명”¹¹을 갖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범법은 것이다. 여기에 범법은 것이다.

판악세대/Acro광장

긴 불황의 터널, 이제 끝이 보이나



민경훈(법대 78)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난 2006년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시작된 이번 경기침체는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으로 불경기를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길게 이어가고 있다. 주가는 폭락과 함께 발생한 대공황이 그것이다.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부터 경기가 최악이 된 1933년 사이 미국 내 2만4천개의 은행 가운데 1만3천개가 망했다. 주가는 90%가 폭락하면서 GDP는 30%가 줄었으며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다.

당시 경주 향토가의 벽면화에
알려주는 지는 있는지 몰랐지.
먼저 주택·봉화·미술 예술원 등
의 도보 페트 실과 교수수 등
1939년-1943년 사이 흙 짙이
벌어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20년부터 세계 제2차 대전
이 시작된 1939년까지 벽면화
와 주택 가옥을 살펴보면 한
국에서 따로 대공황의 기운은
없이 그 흙 짙은 쪼개 67%까
워졌다.
이 때는 실업수당도, 소생
기금이나 헌금이나 베리티드
메디케 어도, 푸드
스탬프도, 국가와 의료보험도
제작·보조도 없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매우 우울한 생활
을 살았던 것이다. 그들이
나타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하자 '뉴딜'을
시작한 이후 경제를 나蠹(나蠹)였던
것은 물론 실업률을 고쳐놓은
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기대였다. 2003년 25%에서 1936
14.4%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1937년 당시 14.9%로 올라섰다.

1970년대는 경기나 냄새에
인물과 함께 짙은 계속
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에 이건과 블린턴의 시장·경
제과 함께 경제가 성장하
서 역시 올랐다.
2000년 이후에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인물·장황·계속을
기 위해 연방 예금제도 이전
과 저금리·정책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빠르게 두 차례 이상
뛴다. 그 이후에는 경기침체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고용이
사람들은 미국 경제를
경제에 막어지지 않는다는
상상을 갖게 됐고 조작된 서민
에게 밭을 팔수 없을 지 않고
집값을 사자 대세가 됐다.
그러나 세대에 영원한 것은
다. 2006년 퍼시픽을 기록한
국 집값은 그 후 반년 동안 끊
없는 하락을 기록하면서 수십
주요 소유주들은 파산과
기록령정도를 물이 넘쳤다.
기간 미 국 집값은 평균 35%
이었지만 10년 달러가 중반정도
그러나 상승에도 한계가 있다.
주택과도 한계가 있다.
개월간 나오는 각종 지표는

디어 주제 시장이 긴 불황의 터를
벗어 나면서 2000년 9월에
마침내 10년 만에 주식 시장이
일리고 있다. 주식 매수에 비해
나온 주택 평균 대기 기간은 69
개월이었는데 이는 대기 기간에 비해
30%가 줄어든 것이다. 대기 기간
평균 대로 9년 9개월을 기다려 유통 6
개월 밖으로 강조했다.

LA 한인타운 주택 시장은 수도
권 남동에 빠른 걸림돌이 최근
불러나간 사례가 많다. 예컨대
여기 세제 개혁으로 대기 기간을
제로로 설정한 미리 20대 노년
세대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대기
기준 0.5%를 넘겼다. 특히 20대
여성이 행정부의 세금 규제에
대해 항의를 펼쳤지만 이번에
는 차별화로 이뤄낸 것이라 떠나
는 차별화로 이뤄낸 것이라 떠나
는 차별화로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외국 경제에도 주목
하고 2000년 대에 초 주택 주택
호황이 다시 오기로 기대할 수
는 없다. 길게 보면 미주 집값
은 일정한데 비슷한 비율로 올
랐다.

주택을 주기 수단이 아니라 투자
기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택
가 잘팔리나. 주택 범용 불편과
대통령이 물에 세게 저울질한
의혹을 또 다시 잊어버리는 안된다.

최용환의 영화읽기 <어느 반전영화 Battle : LA>

역설로 그려낸 전쟁의 처절함

최응환(상대 80)

이런 반전 영화가 있다.
로도로 받았던 초현대 무기로
무장한 강대국이 제례식을 구
시기 무기 뒤에 있는 우수 전국을 쟁
박한다.

침략하는 이유는 후진국이 보
유하고 있는 자원 때문이
다. 후진국 자원은 초강대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요를 대
교하는 데 핵심적인 자원이다.
후진국의 해안에 기지가 확보
되는 강대국은 강력한 기지 확보
와 보호로 무장된 거점군을
우선진국 도시에 침습시켜 자
자비하게 시설을 파괴하고 모
임한 학살을 한다.

후진국은 한 소대라도 선진국
군과 정평을 놓는 지역의 민족
을 구하기 위해 전진으로 교
인된다. 그리고 나서 전투장을
정차 차이로 후진국 소대는 가고
수소 대수원들을 훔쳐나온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고기, 후진국

국의 공군으로 대신 국군의 항공부대는 드론을 활용한 미사일을 섬멸했다. 어린이들이 드론을 활용한 미사일을 구출한 후에는 국군 소대원들은 드론을 보여주고 자신들을 살피기 위해 서처웠던 부모들을 치운다. 상부원인 부양인으로는 적과 폭탄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계획해 미군 소대원들은 비스에 폭탄을 장착한 자살 테러대 등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해 면사된다. 부두원들과 민간인들은 살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자살 테러를 하려는 후진국 병사들은 유행으로 묘사된다.

혹시 이 영화가 이리나크나 그리스에서 만든 미안한 영화인가 의아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미국 영화다. 올해 초 개봉된 *Battle: LA* 혹은 *World Invasion: Mexico City*라는 이름의 미군의 육상 영화인 *The Zone*가 *Battle: Los Angeles*

les' 이고 이 영화를 훤연 표현한 제목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World Invasion'으로 개봉하지만, 아예 서에 'Battle '96'로 입국하겠다. 웨일에서 말한 '후진국'은 미군이고, 미국을 침공한 전쟁 능력가인 계획이다. 저지에서 풍물인 H2O, 즉 물을 노리고 운동하는 것이다. 와이번은 물을 연용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영화비평가들은 이 영화가 미군을 미화하고 옹호화되고 비판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처辙함이고, 아무리 미군이 세계국가라 하더라도 그들이 미군의 위험에 목숨을 바师范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투정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영화를 봐왔다. 대표적인 것이 'Death Hunter'와 'Killing Field'이다. 그러나 이 영화들의 전장은 딱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든 영화들이 아니는 것이다.

인이 폐자 가족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고 노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일을 좀 낫다는 면에서 저도 개인적인 면에서 특히 그 사람들을 위한 반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지가 될 수도 있고, 웨일런 사파워로 암울한 체험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일정을 지나는 세월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세월을 수 있기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푸아 한 영화화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으로 웨일런을 주인翁으로 꾸려나온 이라고 믿는 백인들은 주인翁으로 꾸려나온 한 반전 치료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거의 없으나 보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찾고 있다. 물론 미국인들은 군사적으로 으뜸한 적에 의해 위험에 처당하는 것과는 거리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Independent Day'다. 그러나 'Battle of America'와 차이 있는 'Independent Day'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무너져 떨어진 학교 건물과 같은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무너진다 것이다. 외계인이 무너진다 것이다. 이런 외계인을 그들이 어떤 이에 스테이터비트 빌워온 그들이

A movie poster featuring a soldier in a helmet and camouflage gear standing in front of a destroyed city skyline. The title 'BATTLE: LOS ANGELES' is at the top in large, bold letters. Below it is the tagline 'It's not war. It's survival.' A helicopter flies in the background.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전승한 후 미군들을 세계의 미국 자제에 주는 물리적 인 피해는 바로 미국 국민에게는 주는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자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후에 자신도 신신하게 후유증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아야” 하고 깠던기를 버리고 마찬가지다.

‘Killing Field’도 별반 다르지 않다. 침략당한 나라의 간인들이 받는 피해를 그렸지만, 결국 이는 침략국 민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의 외 다른 의미가 없다. 살인자

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Independence Day'의 전자는 거의 광공전이다. 현대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전투 그런 대규모 국군과 민양군이라는 경우는 별로 없다.

'Battle LA'에 등장하는 계인제과 미국 해병의 시가전 중등의 어느 지방에서 벌어져 있고, 장면마다 해도 액상상상력을 동원하면 유시느낌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드물게 본다면 미국인들이 이화를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할당 수도 있다구나, 자원부에 침략한 군사적으로 절대

주인공은 상사로 등장하는 Aaron Eckhart의 연기도 뛰어나다. 자꾸 머니리睬에 빠질 수 있는 역할을 흥미롭게 해냈고, 전정한 감동을 선사한다.

최근 고의여자 백선 히로로 등 장·한 Rodriguez('아바타')에서 반란군에 가담하는 조종사 역, 'Machete'에서는 미국의 민족주의자와의 전투를 벌이는 멕시코 불법이민자 음호 비밀단체의 지도자 등)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다.***

222호 2012년 10월

동문동정(일부 미주 중앙일보·한국일보 인용)

정운찬 전 총장 충리 프리스턴대에서 특강



프린스턴대 이승만 학생회에서 특강, 뉴욕 '위아자 나눔터'에서 네타이 기증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에서 열린 「이승만 헌」 개관식에 참석해 「이승만과 대한민국」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뉴저지의 위아자 나눔터에 기증한 네타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대한 특강을 했다.
이 기념식에는 김종석 후이 대교수,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이인수 빛지대 명예교수, 김길자 경인여대 명예총장 등도 참석했다.

프린스턴 대학은 최근 공공경제학 대학원인 폴 웨인 스쿨(Woodrow Wilson School) 건물에 「이승만 헌」을 개관해 3월 「Syngman Rhee 1910 Lecture Hall」이라는 기념 동판을 설치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10년 브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린스턴 대학장을 지낸 우드로 웨인 전 미국 대통령이 그의 넷도 예배를 했다.

그는 이어 「한국 위아자 행사에 이승만 선수의 아버지 방망이를 경제학 박사학위 받은 정운찬 전 총장이 「이승만」 기념 특강을 주제로 2010년부터 5억 원(만원 48만달러)의 학술 기금을 모

서울대 미주 동장회보

11

미주 한문인협회 수필분과
(경정실 수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인 김명덕(사진 원작자) 등분이
한국의 문예지로부터 신인상을
수상한 3인 중 1인으로 선정돼
포럼이 개최됐다.

김명덕은 「한미리 인생」
이라는 수필 작품으로 2012년 가
을호 「세계인 포럼」에 당선해
이같이 선정됐다.

모임은 월례로 출판하고 1970년
시기부터 온행 근무를 시작으로
2010년 은퇴할 때까지 평생 글
윤이로 활동한 김명덕 농문은
은퇴 후 사진 활동과 수필 창작
에 전념하고 있다.

김 동문의 수상자 「한미리 인생」은 이민생활 40년이 지나
회계 변제 있는 미리를 보며 지난 날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성균관대 출신 후 서울 중·고
등학교에서 교员으로 일한 이철남
씨는 의류 비즈니스를 했으며
은퇴 후에는 제비 발명가협회 회
의사·한국 활동 중이다. 당시 작
가이운 실직자는 한국에서 서
교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가 의류
사업을 하며 겪었던 좌충우돌의
내용이다.

차명숙씨는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으로 갤리포니아 사회복지
국에서 30년간 일했다.

반기문 총장 「외교관 DJM 때 끝날 뻔」

김대중·조지 부시 한미 정상회담 실패로

“지난 2001년 배액관에서 열렸던 김대중-조지 W. 부시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은 내게는 ‘재앙’이었다. (대통령직 이전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끝나자 김대중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으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 때 적烈 외교관으로서의 나의 생애를 끝낼 뻔했다.”

반기문 유네스코 의장을 맡기면서 한미 대화에서 한미 대립으로 끝나자 그 대립을 막으려는 그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그 때 적烈 외교관으로서의 나의 생애를 끝낼 뻔했다.”

반기문 총장은 “한국은 당시 정부와 유네스코 의장을 맡기면서 한미 대화에서 한미 대립으로 끝나자 그 대립을 막으려는 그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그 때 적烈 외교관으로서의 나의 생애를 끝낼 뻔했다.”

반 총장은 “한국은 당시



↑반기문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블룸레이트로 돌아온 미리마루트 대교수와 대답질을 펼친 모습. 출신대학에서 벌어진

반 총장은 세계 각국의 저지도자들이 시장에 구애받지 않고 얻게 해주세요.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게 전화를 24시간 열어둔다”고 노후화 정부에 대한 찬사를 바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어온 질문은 그의 손을 길어올렸다.

반 총장은 “하루 회의 5건을 주제하고, 10자에 연설을 한 적도 있으며, 홍수·지진 등 세계 곳곳의 모든 재난 현장을 급히 방문하기 위해 여객기 이코노미 좌석을 타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하루 회의 5건을 주제하고, 10자에 연설을 한 적도 있으며, 홍수·지진 등 세계

진단과 치료를 통해 청진기로 진단되는 질병은 100여 가지로, 그 중 90%는

인간의 질병이다. 그 중 50%는

222호 2012년 10월

서울대 미주 동장회보

13



워싱턴 가톨릭 대학에서 고오기창 부총장 추모 강연회

매 2년마다 한 차례씩 마켓대와 가톨릭대에서 번갈아 열려

지난 10월 1일 워싱턴 DEC 소재 가톨릭대 법과 대학 건물 내의 모의 재판실에서, 고오기창 박사(법대 50기) 추모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회는 고 오기창 박사 가족의 후원으로 고인의 대학 원장과 부총장을 역임했던 마켓 대학과 가톨릭 대학에서 2년에 한 차례씩 번갈아 주최하고 있는 행사다.

1년 전인 지난 2011년 11월 2

일에 첫 번째 강연회는 마켓대학에서 열렸다. 글년에는 가톨릭 대학의 차례였다.

가톨릭 대학 존 가비(John Garvey) 총장의 인사 말 후에, 정치학과 과장, 전 사회 사업 대학 학장으로 밟아 있었고, 한국계 앤드류 예(Andrew Yeo) 교수 수가 강사로 소개됐다.

이번 강연회는 고인의 아시아학 연구소 소장이며 전 백악관 동북아 안보 관계를 맡았던 벽터

차(Victor Cha) 교수가 한-미 관계에서 열렸다. 글년에는 가톨릭 대학의 차례였다.

비터 차 교수는 한-미 관계의 현재와 전망에 대하여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전하였다.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차 교수는 “고 오기창 박사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경의 저서 Korea: Democracy on Trial (Cornell UP, 1968-1970)과 Korean Politics: Quest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

velopment (Cornell UP, 1999)”은 근본 저서로서 그후 이루도 반복하지 못한 칭송한 연구 결과이며, 자기는 두 책을 다 훨씬 광고해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고인의 고종사촌이며, 동문인 이달 이사장 김수진 박사는 “교대에 걸친 바탕이 절실히 바탕이 아예, 동문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대단히 치하된다”고 말했다. 조봉완 박사는 역시 동문(법대 53기)으로 조지 티줄 대학에서 한국어 교수로 재직했다. 이날 수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소대 조봉완 교수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이 대학의 교수, 학생 수석학위가 참석했다. 이 행사는 10월 3일 출판된 기록 대신 신문기사로도 자세히 보도됐다. ***

손세주 신임 뉴욕 총영사 부임

“한인 권익위해 최선을”



“뉴욕 한인사회와 더욱 소통하고 하나되며 총영사관을 만들겠습니다.”

손세주(58·사진) 신임 뉴욕 총영사는 지난 9월 부임 예정이다. “이제 한인사회의 종주권 역할을 맡고 있는 뉴욕 한인사회의 부임한 해 대체로 기록과 함께 긴장도 된다”면서 “지난 34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과 정책을 세울 수 있어 부임 소감을 더 나은 헌신과 함께 담아내고자 한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손세주는 “세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뉴욕 등포구에서 한인사회가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사회에 인정받는 민족 한국의 국가 위상도 그만큼 제고되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뉴욕한인사회에 대한 긍정은 예정을 나타냈다.

손 총영사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 한인사회의 화합과 미국사회의 각계에서 두각을 보이는 한인 2세, 3세 젊은 이들과 단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 6월부터 약 3년간 뉴욕에서 유엔대표부 한사관을 역임했던 손 총영사는 고종전민원 서비스에도 짐仲裁하겠다.

그렉 LA에서 북한인권 커퍼런스
'North Korea Human Rights' 사무총장

동문 그렉 스칼라토우(Greg Scarlatotto)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과 90기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에 사하고 있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중 하나인 ‘North Korea Human Rights’가 지난 12일 LA에서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한 커퍼런스를 개최했다.

그리고 스칼라토우는 지난 1990년 무민니아이의 공산화가 해제된 후의 첫 국비 정부 학생으로서 서울대에 입학해 10년간을 얻어온 학부 과정(정치 외교), 그리고 대학원을 마쳤으며 한국 부인을 엮어 지금은 팔 둘의 4인 가족으로 워싱턴 DC 근교에 살고 있다.

뉴잉글랜드 동장회의 전 회장 윤상래 등문은 “그렉은 북한 인권옹호를 위해서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

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North Korea Human Rights’는 LA 관공용 박물관에서 북한 인권 커퍼런스를 개최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 및 주민 생활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커퍼런스에서 앤드류 뉴치오스, 로버트 코렌 북한인권 위원회 공동 의장 등 참석자들은 “북한 정부는 국제 인권단체에 수감시설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북한 교도소 수감자들의 인권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기조연설을 한 신현성 LA 총영사는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개방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실태를 고발한 층을

“10월 12일 LA서 열린 북한인권위원회 커퍼런스에서 탈북자 신동혁(원쪽 두번쨰 부부)씨를 비롯한 탈북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페네 빌리스 이 대학의 교수, 예강 수석학위가 참석했다. 이 행사는 10월 3일 출판된 기록 대신 신문기사로도 자세히 보도됐다. ***

년간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주제 연구인권단체 소속이나 학교에 있는 국제 인권학자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미리 알면 좋겠다”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한인 공동체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퍼런스에서는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의 인권 상황이 공개되고, 북한한국과의 거처 북한을 탈출해 나온 신동혁씨의 생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신동혁씨는 “정치 수용소에서 14년이나 24세 때 탈출했다”며 “북한에는 언제 사형이 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치범 20만 명이 수용소로 수감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국립인권원 한동호 박사

도 범죄자 교화로 불리는 정

치범 수용소가 개발과 노동 등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위원회는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하며, 미국 정부도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22호 2012년 10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15



필라델피아 동창회

민홍식 동문 신임 회장으로 취임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45명의 동문들이 부르 멜 소제 갈보리 비전교회에서 열어 신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2012~13년 회장으로 펠라델피아 동창회를 이끌어 갈 신임 민홍식 (수의과 60) 회장은 전임 주기록 (수의과 71) 회장으로부터 동창회 회장을 인계받았다.

신임 민홍식 회장은 “올해에는 좀 더 많은 동문들이 모이는 동창회, 펠라델피아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봄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양 세미나 시간에는 정학랑 동문이 우울증과 알츠하이머에 대한 강의를 했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신임 민홍식 회장은 10월 6일 부회장 Quaker Wood Camp Ground에서 도임을 가졌고 연말 파티는 12월 19일 라이너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정학랑 상대 61>



↑신임 민홍식 회장이 주기록 전임 회장으로부터 교기를 인계받고 있다.



시카고 세종문화회

미 학생과 교사들에게 시조보금

‘어린이 시조나라’는 한국에서 발행되고 유일한 어린이들을 위한 시조 잡지다.

시조는 한국에서 어린이들을 통해 새로 피어나도록 노력하는 어린이 시조나라의 서천호 시인과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 시조를 보급하며 시조가 미국에서 새로 보급되는 어려운 노력하는 세종문화회의 힘에 서로 같은 공동경쟁이 있어 어린이 시조나라 창간호 때부터 두 단체가 서로 격려하며, 정보 교환, 그리고 계획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어린이 시조나라’의 카페(시조나라 새 소식판)에 세종문화회의 2012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어린이를 포함한 세종문화회가 계획한 사업으로는 신조쓰기 교육, 차세대 CD들을 참가한 모든 학교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1월 15일에는 ‘시카고 Poetry Foundation’에서 시조를 강의하는 행사가 열린다.

(www.sejongculturalociety.org 참조)***

‘어린이 시조나라’ 카페(시조나라 새 소식판)에 세종문화회

는 동창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봄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학랑 동문이 우울증과 알츠하이머에 대한 강의를 했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신임 민홍식 회장은 10월 6일 부회장 Quaker Wood Camp Ground에서 도임을 가졌고 연말 파티는 12월 19일 라이너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정학랑 상대 61>



뉴욕 동창회

Rotella Memorial 골프장 대회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김창수)가 지난 10월 6일(토요일) 뉴욕주의 Haverstraw에 위치한 Philip J. Rotella Memorial Golf Club에서 추계 골프 대회를 개최하였다.

모두 70여 명의 동문과 배우자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는 각자들의 핸디캡을 가지고 Net 점수를 계산한 후 등수를 매기는 방법을 택하였다.

자세히 말하자면 ‘골든 클럽’ 멤버는 클럽에서 정해진 핸디캡을 적용하였고, 그 외의 동문들과 배우자들은 자신의 Declare한 핸디캡을 적용하였다. 즉 Honor System을 시도한 것이다.

이날 경기를 마친 후, 참가



뉴잉글랜드 동창회

Cochituate Park에서 야유회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정성주)가 지난 9월 청량한 초가을 날씨에 Cochituate State Park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 야유회에는 6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들을 즐기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뉴잉글랜드 각지에 퍼져 있는 52개 원로부로부터 02학번 세대기까지 다양한 선수배가 한자리에 물 풍선 던지기, 홀라후프 경연 등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게임들을 즐기며 다양한 세대 간의 분위기였다. 다양한 세대 모두 이날 행사에서 활동하는 선수배들이 자연의 이름다움

속에서 열린 마을一样로 대화하며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었다.

특히 일워진 뿐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각종 음식을 준비해 와 풍성한 식사시간이 마련될 수 있었고 열심히 고기를 구워 다른 회원들에게 나르는 등 모임을 위해 하반 구분없이 빛 밟고 나선 모습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동창회는 이어 10월 20일(토)에 Wachusett 마운틴으로의 등산 행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정보와 문의는 <http://sites.google.com/site/snuaane/> 한다. ***

↑뉴욕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이 골프대회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을 했다.

est to Pine 김영원(상대) ▶ 남자 Longest Drive 김영희(법대) ▶ 여자 Longest Drive= Mrs. 조경숙(사회)

한편 뉴욕 지역 동창회는 오는 12월 9일(일요일), Flushing에 있는 대동 연회장에서 2013년 골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영(미대 81) 총무>

↑Pine 김영원(상대) ▶ 여자 Longest Drive= Mrs. 조경숙(사회)

한편 뉴욕 지역 동창회는 오는 12월 연회장에서

2013년 골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영(미대 81) 총무>



이달의 초대석<8> HMI Inc. President 이홍표(의대 58) 풍운

“오지 의료봉사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Pace-maker · LCD 시술에 획기적 Safe Sheath 개발
Kaiser 병원 최고의 ‘Exceptional Physician Award’

‘추처 낭중(鄒處囊中)’,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재능만으로 위에서 이르기 마련’이라고 했던가. 이홍표(의대 58) 풍운은 바로 그런 분 중의 한 예가 아닌가 싶다.

뛰어난 심장내과 전문의이면서도 1급의 바둑 실력을 글프에서 역서에 남을 이정표를 세웠으며 테니스·Sailing 등 스포츠로 일 잘 아버나마 치료에서도 조예가 있다.

이홍표는 지난 1966년 처음 Detroit에서 Intern 생활을 시작한 뒤 1977년 캘리포니아 이주, Harbor City의 Kaiser Medical Center에서 Chief of Cardiology, CCO Director로 2004년 9월 은퇴했다.

32년간의 심장내과 현역에서 은퇴 후에는 지난 1992년 자신이 설립한 바 있는 HMI(Hiro Medi Invention Inc.)의 President로 임해오고 있으며 ‘제동이 뛰어난 사람’의 표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HMI Inc.는 의료기기 발명과 개발 전문으로 대표적인 제품으로 심장내Pace-maker, 또는 ICD(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를 제작·설계·판매하는 ‘Lee Safe Sheath’다.

이 풍운은 ‘Sportable Hemostatic Valve and Sheath’를 지난 1999년 심장내과 전문의 역시 사용 평가 기록과 함께 평가해 당시 평가자는 혈관내로 투입되는 혈장상(Air Embolism)을 예방할 수 있어 많은 사용되고 있다.

Pace-maker 시술이 필요한 심장병 환자는 미국내에서도만 예년 50만 명 정도로 약 2000명이다. 한국인 확진자도 연간 200명 정도로 속상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100만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풍운은 도전의 5대기 조선·한중·시절·영·정의장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데 모두가 이 동문이 개발한 ‘Lee Safe Sheath’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ICD가 필요한 환자만도 미국내에서 연간 30만 명 정도로 속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역시절 의사와 전문의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대도회 회기적으로 전문을 바꿔놓는 것도 바로 이 동문이다. 따라서 은퇴후에도 그가 세계 심脏학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지대하다.

캘리포니아 서해안의 가장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Rancho Palos Verdes의 저택에서 이홍표 풍운은 만나 그간의 이정(里程)을 들려보았다.

“1966년 Detroit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66년 Detroit에서 Harper Hospital에 Intern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보수도 적은 때마다 36시간 교대로 가히 하루종일 근무였던 것 같았지만 그 시절은 괜히 해보려고 미래의 밤의 전망이 있어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Detroit에는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Internship 후 1967-1970년까-

지금 같은 현대에 뛰 그린 사실이 중요한가요?” (이 풍운은 사족의 단체로 아들인 광재대군(鶴平大君, 1425-1444년)의 21대 손자 후손이다.)

“도미 동력을 여행했었어요.”

“1960년 대우 한국의 의술은 많이 나阜해 있었지요. 그런데 배군·군의원으로 군 복무 후에 배마를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었어요. 당시 존슨 대통령이 Medicare를 처음 실시해 의사들이 많이 부족했던 시기라 엔은 지원했어요. 이때 등기 침술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지대하다.”

“Michigan Detroit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66년 Detroit에서 Harper Hos-

pital에 Intern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보수도 적은 때마다 36시간 교대로 가히 하루종일 근무였던 것 같았지만 그 시절은 괜히 해보려고 미래의 밤의 전망이 있어 행복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Detroit에는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Internship 후 1967-1970년까-

지은 Royal Oak의 William Beau-



↑이홍표 풍운이 부인 곽연숙 여사와 자리를 함께 했다.

제의해서 관찰시켰습니다. 이 시술이 아주 이익이 있고 성공하자 그 뒤부터는 심장내과 전문의 단독으로 시술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비단도 훨씬 경감이 됐지요.”

“이처럼 좋은 기기의 시술을 한 결과 전수하셨나요.”

“연세대 의대에서 심장과 과장으로 제2계열 중간 등기생이 초청을 해서 세프트이안 병원에서 직업 강의와 시술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료생활 종 기여에 넘는 일이 있어 어떤 것인가요?”

“내 분야는 3년 전 시장 날로써 부모의 전문 친동한인 교수님들이 그동안 저를 키워온 아버지의 친동한인 교수님이 심장 질환을 비롯한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겪어온 경험으로 기록하고 해서 보았는데 그 후 어떻게 되는지 잘 안타까웠습니다. 그로부터 수바이어 박사가 대단히 동경을 해 이해해주시면서 그 시절 가장 존경받던 분 중 한 분이었지요. 이후 그 교수님을 비롯한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록하고 해서 보았는데 그 후 어떻게 되는지 잘 안타까웠습니다.”

“Safe Sheath”의 개발 초기 1995년 Kaiser Medical Center에서 친동한인 교수님과 함께 ‘Exceptional Physician Award’를 수상했다.

“상은 이 병원 3000명의 Medical Doctor 추천으로 선정되는 상입니다.”

“Safe Sheath”의 수술은 처음으로 심장내과 전문의 단독으로 하여 만든 분으로 알려져온 편입니다.

“Pace-maker” 시술 중 전문의 수술의 체계화 외과 전문의와 심장내과 전문의가 같이 하도록 일 반화 돼 있었지요. 그러나 굳이 다른 외과의사와 같이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976년 12월 내가 처음으로 단독 시술할 것을

“기장 원쪽 사진은 이 동문이 처음 개발해 퀼터를 낸 H.Lee Safe Sheath에 대한 몇몇 사진. 가운데 사진은 1981년 Santa Island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의 모습. 오른쪽 사진 중 원쪽은 기장 치유한 시민이 조종준(의대 67) 정성호로 보는 듯입니다. 이 풍운 부부 친동한인.”



222호 2012년 10월

서울대 미주 동장회보

17



↑이홍표 등문 부부가 딸(예진Jen), 아들(총석 Orvis), 손녀(남지 Fiona, 승기 Coleen)들과 함께.

하루는 Samoye인과 동양남자수가 6살난 딸을 대리웠는데 진단에서 브로니 설한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교수님에게 병원을 설명하고 빠르게 본토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헤더니 동양 남자수가 허리를 구부리고 “선생님, 제 아들 Ron은 제게 살려주세요”라고 말해요. 알고 보니 그는 한국 원양 선원으로 Samoye 와다가 정처해 평생을 고생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Samoye가 가정을 이루면서 낳은 아이였어요. 순간적으로 21년 전 남해 무의존에서 심장병의 병이 생겨나 이번에는 어려운 게 해마다 드는 구애였다. 결심해 이곳 저곳으로 애굽에 걸친 Hawaii를 통해 San Francisco 소아병원으로 후송.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완쾌되어 돌아왔어요. 이 2개월 후 저 기록들이 Samoye를 담았을 때 그동안 원에서 직업 Check-up하고 Hawaii Medical Center로 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은 Samoye 대변 관이 Unstable Angina로 입원하는데 심각해 역할로 Hawaii로 대체가 Coronary bypass Surgery를 받도록 해주어 지금까지 편지를 주고 받는 사이가 되고 있어요.”

—Samoye와 Hawaii 간 친로 루트 시스템을 개척한 샘코트니.

—한번은 글도 아파서 수

증을 넘었을 때 하던데요.

—2001년 Robinson Ranch/Mountain Course에서 개최됐던 ‘22nd SGIA Four-Ball Net Championship’에서 파트너 일영씨와 함께 국제적인 우승을 차지한 것이 한생의 기역에 남을 일입니다. 당시 나는 Rolling Hills Team스속으로

헤아림 수조차 일이 많지 않아요. 천문학자들은 지구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거친 형성이 이 우주 안에 아주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신비한 우주를 관찰하고 꿈꾸우면서 것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힘구사시나요.

—“미리 천문가들과 정보도 교환할 경 Los Angeles에 있는 Griffith 천문 대리의 풍악 회의인 ‘Friends of the Observatory’에 가서서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2004년에는 Easter Island에서 가서 일식 관측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 생기면 우주간 여행을 다니나니죠.”

—“인간의 한 평생이 겪을 것이라는 데는 볼 수 없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갈 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두루 다녀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지금까지 45개국 정도 여행했는데 더 나아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 지역 우승의 기회를 있는 곳은 모두 가 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보았었던 일이라면 어려운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운전 후 한 일주 차랑스 위에 여기 있는 Palos Verdes Peninsular Land Conservancy의 Fund raising에 적극 참여해 California 해안가에서 유숙하게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이곳 Palos Verdes 해안 1,200 Acre 구역에 성공해 해양 생물과 자연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후손들에게 자연의 앙금처를 만드는데 한국

(寒露之馬)”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요. 누구나 나에게 일에 봉착하고 마음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새옹지마’라고 생각해버리면 마음이 아득히 편해집니다. 하하하.”

—“그렇게 지금까지 순탄하게 걸어오신 것 같은데 마침대로 안전일이라도 있나요.”

—“우리나라 경계의 거목이었던 이병철 회장도 그대로 안 되는 일이 37년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와 함께 미중으로 옮겼지만 아무래도 경제학자인 아버지도, 부인이 있는 그에게는 난관은 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일에 봉착했을 때는 그냥 가진이야 말로 정직한 주체로 하다고 봅니다.”

—“기록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시광과 달 하니. 아들 하나님니다. 아내는 솔수에게 이하여서 사내와 함께 나왔고, 막은 UCLA를 나와 가족주로 내겐 손녀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들은 Harvard 대학을 졸업하고 UCLA 의대를 나온 후 정신과 의사로 뉴욕의 부르크린 정신과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드님이 부친과는 다른 전공을 택하셨습니까.”

—“나는 아들도 심장파를 전공해 주기 바랐지만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해서 정신과 선택한데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경(詩經)에 ‘班乎幽丘孕魯班(不育初興克兵)’이란 했던가.”

—“시작은 수월하더라도 끝나는 끝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등문에게는 이 경계가 별로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아이는 유후인 의료 전문으로 미주로 이동해 온 이후에 일본에서 시작부터 일하는 암았겠지만 은유 이후에 시경에 차운 성공적인 전문인 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홍표 등문»**▶ 1958년 경기고등학교(54회) ▶ 1960~1964 서울대 Pre-Medical School ▶ 1960~1964 Medical School ▶ 1966~1967 Rotating Internship Harper Hospital Detroit, Michigan ▶ 1967~1970 Internal Medicine, William Beaumont Hospital Royal Oak Michigan ▶ 1970~1972 Cardiology Fellowship, Henry Ford Hospital Detroit, Michigan ▶ 1978~2004 Full time Partner Cardiologist, Southern CA Permanente Medical Group LA, ▶ 1976~2004 Chief of Cardiology, Director, Coronary Care Unit, Harbor City Kaiser Medical Center, California ▶ 2004 Retired ▶ 2004 President of HJM(O-Lee Medical Invention) Inc.” ***

“Samoa와 Africa에서 ‘Aita Pea Pea’라는 말이 인상깊었어요. 살아오면서 풀리지 않을 때 ‘새옹지마(塞翁之馬)’를 생각하죠”

을 확립했어요.”

—지금까지 시술한 환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엘리포니아에서 만도 Pace-maker 시술 2천여 건에 심장도판 조영 시술(Coronary Angiogram) 3천여 건을 했어요. 나로 인해 생생한 일화를 들어온 환자는 많으니 그들을 보면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Pace-maker 시술은 필요에 맞는 시술을 시작하며 향후 X-ray 기계가 고장나거나 고치려면 1세대만 Fore에 조예가 있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역시 Pace-maker를 부작으로 하거나 부작을 가까운 하위기로는 광수했어요.”

—같이 기억했어요.”

—“물론이죠. 비행기 좌석 및 계단을

인으로서 일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네요. 생활의 좌우명 같아요. 신조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실지요.”

—“Samoa에 갔을 때 가장 인상깊었던 말이 ‘Aita Pea Pea’였어요. 또 이로카의 키리안 자로에게 우승할 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라이더를 따라 부끄끄울까봐 한참을 내려다니 혼자 뺨과 뺨을 들기만 순간은 마치 전기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이 사실은 당시 글프 전문지 ‘Fore’에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천문에도 조예가 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주와 바로 무한한 신비를 감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도 출생과 장래 등이 신비로운 일련의 지구가 속한 대양계가 이 우주 안에 수를

풀듯 모두 깨어나니 그때마다 새끼를 품고 해요. 그 때 그 돈을 받았으면 그걸 얻을 수 있었지만 영성 목자가 찾을 텐데요. 하하하. 하여간 그 수장을 하위기로 대리기 거쳐 부사나 수술을 마쳤습니다. 또 어느 날

—평소 나에도 조예가 깊다는 것을 좀 그럴지만 특히 환자를 위해서는 의사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죠. Kaiser 병원에 있을 때 강감을 위해서 명媛대 테니스 등호회장을 만들었어요. 나아 50여 후부터 글프를 즐기지만 테니스에 매료된 나머지 2003년 테니스에 매료된 나머지 2003년

—원주시부터 2004년 22nd SGIA Four-Ball Net Championship’에서 파트너 일영씨와 함께 국제적인 우승 사실이 재차된 Fore’지 이동문이 천체 망원경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2004년 일상관련 행사를 찾은 Easter섬에서의 모습.





남가주 동창회

제5회 커뮤니티 봉사활동 펼쳐

법률·세무·건강·무료 상담

지난 10월 19일 남가주 동창회(회장 서치원, 공대 69)가 모교 출신 전문인들이 협력으로 지역 한인 공동체를 위해 각종 법률 문제와 건강, 현명한 재정설계 및 자녀 꿈과 동반 성장까지 한 자리에서 무료 상담 혜택을 제공했다. LA 지역 한인 동포들의 건강과 각종 전문 분야 공익을 위한 커뮤니티 봉사 활동에 나선 것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서울대 남가주 충동창회 커뮤니티 서비스' 행사는 그동안 40여 명의 모교 출신 전문인들이 나와 동포들을 대상으로 의료, 법률,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과 봉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ace, LA)에서 한미교육재단(이사장 김지영)과 서울대학교 밀집센터 및 서울대 병원 LA 오피스 특별 후

원으로 열린 이번 커뮤니티 봉사 행사에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무료 광경병 예방접종도 같이 제공됐다.

▶ **간신용 CPA** = '불황'과의 헌대한 재정설계, 자녀 학자금 전략' ▶ **이민전문 변호사** = '현재 이민법 바뀐 게 알고 계실니까?' 조영기 전문의의 '활동적인 노후 건강을 위하여- 어려운 허리 편안하게 살니까?' ▶ **이종건 변호사** = '한국내 재산상속에 관한 법률문제' 등 무료 특별 강연회가 열려 일반 한인 동포분들에게 건강과 법률 및 세무 정보를 전달했다.

이 강연 후 오후 1시30분부터 선

승준 120명에게 무료 독감 예방 접종도 이뤄지고, 행사를 외부에

서는 수의사들이 나와 익한 건강상담과 무료 광경병 예방접종도 실시했다.



또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개별 상담을 마련해 각 전문가들이 의한 강연도 이뤄졌다.

남가주 동창회 서치원 회장은 "동창회가 윤리를 벗어나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 사회에도 봉사하지 않고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이 더이상 필요가 없다"며 "모교 출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과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 및 출판 간신용 CPA, 이경희 변호사, 두번째 줄 이종건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세번째 줄 조영기 전문의, 이상대 박 전 문인이 이날 각 분야에서 강의 또는 상담 중이다. 이ят 사진은 IN Kwon Kim Family Dentistry의 이범우 원장(왼쪽)과 김인경 동

문이 고객과 상담중인 장면,



충동창회 및 문리대 동창회 골프대회

충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남가주 충동창회(회장 서치원, 공대 69)가 '2012년 남가주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행사를 지난 9월 22일 라하브리의 웨스트리지 골프장에서 개최했다. 모두 10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련의 날 골프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골프 경기 이외에도 만찬 행사를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문리대 및 문리대 주니어(문인사자) 골프대회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가 지난 10월 20일 Lakewood Country Club에서 치러한

에서 주제 골프대회를 열었다. 호수의 둘이 11 acres 나 되고 깨끗하고 잘 다듬어진 Lakewood Country Club에서 치러한 동문들은 마치 이유회를 온 것처럼 하루를 마음껏 즐겼다. <남가주 동창회 김상찬 부회장>



→ 지난 9월 남가주의 라하브리의

웨스트리지 골프장에서 열린 '2012 남가주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EISENHOWER<1>



김태환(문리대 60)
EMINI Haven CEO

Peace and Prosperity to the Koreans

For their current peace and prosperity, South Koreans owe tremendously to the Americans who prevented the Communists' overrun of the South in early 1950's. If we were asked to select one individual who deserved the most credit, it is undeniably President Eisenhower.

On July 27, 1953, after three years and one month of fierce fighting and the huge cost of human lives and properties, hostilities were finally stopped. Officially, a cease-fire was agreed upon and signed by the belligerents; however, uninterrupted peace has been maintained over the Korean Peninsula ever since.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of 1952, Republican candidate General Dwight D. Eisenhower, mindful of the large human toll of both soldiers and especially civilians during World War II, pledged to "go to Korea" to find the way to shorten the war and bring "honorable" peace, if he was elected. He delivered the most important campaign pledge in Detroit on October 24, 1952 less than two week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saying he would "concentrate on the job of ending the Korean

War."

Sickened by the prolonged war and mounting casualties, Americans elected Ike as their 34th president.

True to his pledge, President-elect Eisenhower flew to Korea on December 2, 1952. He inspected the frontline onboard a military reconnaissance plane.

What he found was a wide expanse of rugged mountains and fortified gun emplacements on opposite sides.

Eisenhower concluded that it was not worth fighting each hill at a huge cost of soldiers' lives.

The American army is good at fighting on plains with tanks rolling forward just like those in the Western Europe; however, fighting on hilly terrain is quite a different story. For good or bad for the Koreans, Eisenhower's frontline observation determined the fate of Korea and Koreans.

Later Ike, in his own memoir (Mandate), wrote, "My conclusion as I left Korea was that

"...they did not know that General Eisenhower objected to using the atomic bombs against the Japanese when he was informed that they were ready during the Potsdam Conference in July 1945"

we could not stand forever on a static front and continue to accept casualties without any viable results. Small attacks on small hills would not end this war."

In spite of his resolve to end the war early, President Eisenhower was confronted with resistance within his own cabinet and old, obstinate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When the Republicans nominated Dwight D. Eisenhower as their presidential candidate it was speculated that he was

simply a figurehead and that the party apparatchiks would hand him as they wished. Secretaries Dulles (State) and Wilson (Defense) opposed the idea of a ceasefire while President Syngman Rhee of South Korea insisted on fighting even alone till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chieved.

As the talks on the ceasefire were moving at a fast pace, after the death of Stalin in March 1953, Syngman Rhee sabotaged the ceasefire talks by releasing the anti-communist prisoners-of-war from the prisoners' camps. Ike sternly warned the old president that if he blocked the progression of the talks, America would withdraw its troops and armaments from Korea and that he may fight the Communists alone if he so wished.

On top of that, President Rhee was dealt a second blow by the Chinese Communists. In mid-July, they encircled the Kumgang River Salient (in the middle of the frontline) and almost wiped out South Korean soldiers there.

He paid a costly price for his obstinacy. Finally, realizing that the South Korean army alone (without the Amer-

dian army alongside) could not fight the Communist Chinese, Rhee gave up obstructing the ceasefire process and thus, paved the way fo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on July 27, 1953.

Because of Rhee's a reckless misguided misde, he suffered the costliest casualties of more than twenty thousand soldiers from ROKA (Republic of Korea Army) killed in a weeklong offensive of Communist Chinese forces at the Kumgang River front and the U.S. forces lost about one thousand casualties per week for five weeks from the release of POWs until the signing of the ceasefire.

Those losses of the precious lives of the soldiers should and could have been avoided! Some people still think we lost the opportunity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of the ceasefire.

They say America should have dropped A-bombs in China to do that. However, they did not know that General Eisenhower objected to using the atomic bombs against the Japanese when he was informed



that they were ready during the Potsdam Conference in July 1945. In addition, President Eisenhower said "we cannot use A-bombs against Asians again less than ten years after Hiroshima" when the French asked him to drop them against Vietminh as the French troops were encircled in Dien Bien Phu in Vietnam in 1954.

dier was killed in combat since the ceasefire set in Korea in July 1953 till the end of his second term in January 1961, and peace was preserved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Ultimate Benefactor of Koreans is President Eisenhower

Almost sixty years after the Korean War ended, South Korea, recovering from the war scars, emerged as a strong industrial country and enjoys membership in the G-20 and ranks in the top ten exporting countries of the world. Currently, in South Korea there is a continuous debate over who contributed the most to achieve its present prosperity.

If the Korean War had prolonged for many more years just as we see in Iraq and Afghanistan, and had resulted in continuing destruction of properties and mounting casualties, South Korea could not have achieved as fast and as much as what they have achieved by now.

In this sense, I strongly believe that President Eisenhower is the ultimate benefactor of Koreans by bringing the Korean War to an end and giving peace to the Koreans.

Therefore, Koreans in South Korea as well as here in the States should appreciate Ike's determination and eventual success in putting an end to the ferocious war in Korea despite many saboteurs all around him.

Another aspect that we cannot afford to notice is the United States opened its market for Korean-manufactured goods, starting with clothing. What little money the Koreans earned from the exports was used to rebuild the country from the devastation from the war.

<Continue>



seeable without expanding the war (sphere) and intensifying the ferocity.

The former meant an eventual fight against the Soviets who already had A-bombs by then and the latter would surely increase civilian casualties. Victory for the sake of victory alone is meaningless and it would escalate into the next World War.

Second, as General Omar Bradley (U.S.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pointed out, the Korean War was a "Wrong War" being fought at the "Wrong Time, at the Wrong Place, and with the Wrong Enemies", so why should we continue fighting and increasing casualties without any offsetting rewards?

Third, Eisenhower had deep respect for human lives, both ours and even the enemies. This will be better illustrated in the later topic.

Not only did President Eisenhower stop the war in Korea, but he never started another war during his presidency.

Therefore, not a single sol-

의료/약과	교회	비영리법인 해양 국지 에너지	병역 / 치과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승(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이운열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 Ste-U-10, College Park MD 20740 8991 Shady Grove Cl.Gaithersburg MD 20877
I Seonho Ha Prosthodontics 한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식품/음식점		
의료/내과/면역의	Kang Hwan Restaurant 강한회관 323-937-1070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MD,VA 워싱턴DC
관영재 소아과 • 관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마포 주물럭 Mapp Korean BBQ Restaurant (310)679-3622 146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록현(경영대 84) 301-279-699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GA 조지아 리데일리/제작자
김일영 싱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용수산 Yong J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6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국민의제사	
정수민 외내과 / 혈액내과 정수민(의대 66) (714) 539-6414 12550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943	자연나라 Jayene Foods, Inc. 이승환(상대 74) (562)65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Lee Kyu Sup, CPA 이규승(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395	FOB Synthesis Inc. 최우택(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South Bay Cancer Center 나경자(간호 70) 310-978-49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IPM Woath Management 이원철(법대 66) (410) 777-8081 ext158 1430 Jow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IL-IN 시카고 의료 / 내과/면역의 / 혈과
클리닉	복 가주	Fairway AssetCorporation 남록현(상대 84) 301-279-699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San Bernardin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0)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양성 / 헌혈봉	Moon-Phar & Associates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rce #930 Annandale VA 22003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의사 / 동물병원
케미칼	두리하나 결혼정보 8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사와 높은 성호 율과 많은 초혼 커플이 티에프로. 서울대 등문 과 등문자녀 평화할인 정지선(상대 98) (510)224-0760 91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39 www.2makes1.com	BPS Appraisal Company 박윤일(농대 69) (703) 578-1814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LA Supply 김송희(사회 60) (562) 404-1502 13700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수의사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례(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Ki Chee Chin G&C Industries, Inc. 10000 N.W. 107th Street Houston, Texas 77041 www.gandcinc.com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동문 업소록을 재정비 합니다!"
컴퓨터/컨설팅	의료/면역의/약과/면역의		동창회보를 통해, 또한 개별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동 문 업소록을 정비합니다. 이 동문 업소록은 품종들의 여러 사업 내용을 미주 각 동문 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업소록에 게재되는 동문들 중 일부가 보내오는 광고비는 동 창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들 중 일부는 그동안 업소록 계재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내지 않아 앞으로는 광고비를 내는 동문들에 대한 업소를 중심으로 앞으로 좀 더 보기좋게 구성하여 계재해드 릴 계획이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박희래(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5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2222 2012년 10월

서울대 미주 통장회보

29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애, 애미 !!
한인수(사마 73)영생건강
718-762-06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포트) 분리영양 성공.
2011년 Nature는 논문 발표.

공인회원

Sung N. Pak, CPA
박설님(성마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정일희(성마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Kenneth K. Lee CPA
이경원(성마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흥영수(법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600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황영숙(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골프 유모어

골퍼의 14단계

골프는 운동을 위해서나 그 외 다른 용도로 좋은 스포츠 중 하나다.

한편 골프가 진지 스포츠라고 하고 그저 남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안될 것 같아서도 한다. 또 원하는 사람(?)을 하기 위해 하기도 한다.

골프의 '골'은 뼈(骨)이다. 뼈를 깎는 고기질을 힘들지만 때로는 뼈속 깊이 스며드는 엄청난 '외침'을 주기 때문이다.

'골짜기'는 훗날 14단계'로 나는 이야기가 흥미를 끌고 있다.

1. 골풀(骨芽)= 베니와 색 모두 Beginner를 빙어나지 못한 보보단계. 골프클럽은 뭘 것인가로 골퍼인 체 하다가 잘 맞지 않는 날에는 클럽을 맞아드린 동반자에게 술과 취해 고성방언: 하듯 화풀이를 한다. 병기수리도 하지 않는다.

2. 골사(骨刺)= 골사(骨上) 아닌 방자한 '사(刺)'자가 붙는 단계. 가끔씩 치는 80대 스트레스와 전문을 따고 골프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풀고 기고만장해 있다. 비싼 간격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언봉원 변호사
• 언봉원(문리 61)
(212) 779-1826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부동산/경매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코스모 부동산

이재덕(법대 60)
(201)-784-3367(C)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사회/사업 / 법인

Women In Need Center
무지개의 집 여성 아울렛
길은길(경대 82)
P.O.Box 540929 Flushing NY 11354

운송/유통/증권

American Int'l Line, Inc.
운명화(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의료/내과의/전문의

이재진 삼강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존재 내과
방존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경(치과 66)
702-384-2828 1020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v.com

의료 / 치과병원

OR 오래곤

Fi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 97007

* 웰링 한인교회
최근녕(법대 63)
503-231-1625
615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

GREGORY K. JOO, D.V.M.
MICHAEL J. KERSEY, V.M.D.
JOAN CAPUZO, V.M.D.
COTMAN ANIMAL HOSPITAL
1000 COTMAN AVENUE, PHILADELPHIA, PA 19111
Telephone: (215) 748-3056
Fax: (215) 748-3056
Email: cotmananimalhospital@gmail.com
주기목(수의대 68)

이즈미 월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eath & Assoc.
손정화(생활과 대 77)
494-4220
50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422

한 주변에 이르자면 경로 친화의 삶을 가벼운 드리워지지 않으며 메리 하니 웨니에도 연륜과 무게가 엿보인다.

12. 골공(骨空-空作)= 모든 것을 다 버우는 무이의 지경. 이를 되면 이미 일신의 경지에 거의 도달한 상태. 지난은 골프 인생을 무심한 미소로 돌아보며 신선이 되는 때를 기다린다.

13. 골선(骨線)= 수많은 골프의 예략을 죽은 후에 드리어 일신의 경지에 이르니. 이를 되면 신선이 됨을 못한다. 골프클럽을 들면 어느 곳이나 세인트엔드루스요. 골프클럽을 들지 않아도 어느 곳이나 오거스타나셔널이 세 살의 산성을 얻는다.

14. 골성(骨聲)= 무이의 경지... 활자로는 도지히 표현할 수 없는 강렬적 오르가즘의 세계.



< 고침 >

지난 9월호 「제4회 Brain Network Workshop」에 대한 특집에서 둘째, 이제진 명예교수가 강연한 내용(6면) 중 원본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기에 바로잡습니다.
1. 원문이 「네에」임에 대해 원하는 것과 아니라 연합군에 원하는 것
2. Truman과 MacArthur의 회장 장소는 입목
장이 아니라 Wake Island.
3. Gen. Clark은 Gen. Mark Clark 입.
4. 후보직은 38도선이 아닌 세로운 군사
분계선을 설정한 개인
5.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은 2007년 4월이 아니라 2007년 10월
이상으로 혼동을 주어 이제진 명예교수와
동문 제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편집주간>

'편집후기'

○『제4회 동창회에 등장하여』는 신속하게 편집실에 제공해주어 10월호 미주·동창회 정보를 더욱 넓게 해주었다. 참으로 감사 드린다는 바이다.

○『부-풀은 경 강조사는 등장희보 편집실로』는 이후 일로 하시기 퇴사하신 동창회 회장 학은선 양민도(77)가 이를 위해 부-풀임을 강조하시는 것을 등장희보 전설처럼 소설을 일컬어 경강조사를 등장희보 전설로 한다는 내용이다. 등장희보에는 이같은 소설을 일컬어 경강조라고 부르거나 다른 경조사도 복 등장희보에 계제해 모든 등장희보에 소식을 공유하도록 했으면

라이 대회의 사진과 등장희보 기사를 위한 자세한 자료까지 신속하게 편집실에 제공해주어 당시 작고했는지 등이다. 무디 많이 이용하기를…

○『특집』과 「모든에 대한 번역」은 지난 9월의 세계 Brain Network Workshop은 미국 내에서 서도 저명한 등장 회장과 강연주부는 물론 기록과 기록하고 파일 포인트 내용을 파일로 해서 속 악업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9월호 마감 일정상 행사가 끝나고 마감 일정안에 인터뷰 예약했던 기사에게는 경정장이나 나오고 말았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 뿐이다. ***

<편집주간>

각 지역 회장단

남기주	회장 서치원(공대 69) 310-719-5422 charliessuh49@gmail.com 차기 회장 김상천(문리 66) 714-396-0493
복기주	회장 이정주(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a-nc.org 차기 회장
뉴욕	회장 김창수(국대 64) 212-760-1768 changsook.mcph@hotmail.com 차기 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정선주(간호 68) 781-674-2498 youngpark68@yahoo.com 차기 회장 장수민(음대 76) 978-264-2988 soohilhee@comcast.com
댈러스	회장 이 주(공대 73)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차기 회장 윤경숙(음대 77) 972-248-8811
특키 마룬틴스	회장 표현수(처대 58)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i.com 차기 회장
미네소타	회장 정은윤(간호대 75) 763-773-7227 sallykjm75@yahoo.com 차기 회장
샌디에고	회장 서정윤(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차기 회장
시카고	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fhmcnUSA@gmail.com 차기 회장
에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yjhch@atheon.com 차기 회장
알라스카	회장 문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iyoon@hotmail.com 차기 회장 배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ekjin@gmail.com 차기 회장
오파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 회장
워싱턴DC	회장 황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uri2010@gmail.com 차기 회장
워싱턴주	회장 윤석진(문리 64) 425-670-9067 sock@rocket.com 차기 회장
유타	회장 베유현(공대 73) 801-474-1945 you.bre@yah.edu 차기 회장
조지아	회장 박 이(음대 80) 770-449-0000 minapkoh@yahoo.com 차기 회장 김정호(공대 74) 770-814-0618 hik@mino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이영진(상대 58) 512-591-7739 267-992-1077 yjlee1023@yahoo.com 차기 회장
필리핀 피아	회장 이홍식(수의대 60) 484-744-6785 dhk064@gmail.com 수석 부회장 김정현(공대 68)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 954-599-3452 changkpark@daum.net 차기 회장
캐로리나	회장 김기현(문리 51) 919-530-6451 khkh@ncu.edu 차기 회장
하와이	회장 김용민(수의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 회장
하틀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 66) 913-268-0228 chungsun@yahoo.com 부회장 이상경(의대 70) 918-687-1115 918-360-9178 wanjh@hanmail.com
휴스턴	회장 택순덕(시대 58) 713-984-2066 taksondo@yahoo.com 차기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 604-250-0181 604-521-3009 khie61@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 604-888-4039 서일희(디대 71) 778-322-7732
캐나다 엘버타	회장 조종화(자연 82) 403-620-8261 daihoused@hotmai.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수호(문) · 김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홍학(공) · 오호주(조) · 이영록(공) · 이전구(농)

임예회장 :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 김은종(상)

차기 회장 : 오현환(로)

관악원회 부회장 : 노명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송주경(상)
총무국장 : 백복자(법)
세무국장 : 윤봉수(상)
사무국장 : 이인희(법)
총무국장 : 김경대(농)
감사 : 김재영(농) · 박필일(농)
기금금리위원회 : 이종도(공) · IT개발위원회 : 김병연(공)

회보 임원

발행인 : 김은종(상)
상임고문 : 박석훈(농) · 김건진(문)
편집위원장 : 지인수(상)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조종준(의) · 박양종(문) · 김재영(농) · 나월상(문) · 이재근(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종영(문) · 김종현(의)

논설 위원

김일훈(CH) · 김기태(LA) · 조동준(LA) · 최용근(LA) · 백순(WA, DC) · 속길원(CH) · 이정관(LA) · 정홍택(PA) · 윤상래(NY) · 김강수(NY) · 임승희(SF) · 정성경(CH) · 이석구(NY) · 정요전(LA)

회칙 위원회

위원장 : 서종인(공) · PA
위 원 : 한재민(의) · IL · 이민언(법) · TX · 윤삼래(수의) · NE · 김지영(사) · LA · 신용남(농) · NY · 험은선(증) · WA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 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ak1@gmail.com

*인쇄= Chana Times Printing, INC.
445 Madara St,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222호 2012년 10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31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Tayco
www.tayco.com

082-632-7400
082-632-7424

Facebook.com/tayco.Foods
Twitter.com/taycoFood
YouTube.com/taycoFood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du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818-768-5494

P.O. Box 1368, Sun Valley CA 91352

대표이사 김혜정(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주세요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끌어올립니다.

듀오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받아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뉴욕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www.duo.com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미주지사 213-383-0077 /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뉴욕지사 212-947-2525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 ABOUT TAYCO | PRODUCTS | CUSTOMERS & AWARDS | FACILITIES | WHAT'S NEW | CONTACT US | HOME |



Products Home Page

Flexible Circuit Heaters
High Temperature Heaters
Flexible Cable & Harnessing
Temperature Sensor
Specialty Products

Latest Development

President & CEO 정재훈(공대 64) Ph.D. 714-952-2240

OVER 30 YEARS OF PROVEN PERFORMANCE



AEROSPACE

MEDICAL

DEFENSE

NUCLEAR

SEMI-CONDUCTOR



"언제나 최고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요리로 모시고 있습니다"

Woo Lae Oak

310-652-4187
170 N. La Cienega Blvd.
Beverly Hills, CA 90210



“감사합니다!”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을 위해 특별 친조해주신
다음의 동문(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김은종(상대 59)
- ▶ 홍명기(미래재단 이사장)
- ▶ 이태로(법대 50)
- ▶ 이기준(법대 54)
- ▶ 이병준(상대 55)
- ▶ 양은혁(상대 56)
- ▶ 최용완(공대 57)
- ▶ 이홍표(의대 58)
- ▶ 박종수(수의 58)
- ▶ 노명호(공대 61)
- ▶ 김재영(농대 62)
- ▶ 이종도(공대 66)
- ▶ 김병연(공대 68)
- ▶ 백옥자(음대 71)
- ▶ 강호석(상대 81)
- ▶ 이경희(문리 83)
- ▶ 평통자문회의
- ▶ 최재현(수의 66)
LA 지부회장
- ▶ 한광성
OC·SD지부회장

